

[주간동향] 2006. 5. 23 ~ 5. 30

한국여성개발원 강민정 전문연구원

- ❖ 교육인적자원부, 50~60대 여성 보조인력 육아에 활용
- ❖ 국가청소년위, 제10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발표
-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전수집계 결과 발표
- ❖ 청와대,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정책대안 제시
- ❖ 금융감독원, 대기업 남녀 연 평균급여 격차 2천2백만원
- ❖ 여성가족부, '가족구성원의 대화에 관한 온라인 조사' 결과 발표

❖ 교육인적자원부, 50~60대 여성 보조인력 육아에 활용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5일, 중고령층 여성들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과 함께, 핵가족화에 따라 유치원생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할머니의 정을 유치원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전국 8개 시·도교육청 286개 종일제 유치원에 50~60대 여성 유급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 유급자원봉사자의 1인당 활동지원비는 하루 4시간 이하 15,000원, 월 20일 기준으로 300,000원이다. 이 사업은 올 5월 평생학습국 여성교육정책과에서 '유아-중고령 여성 협력망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는데, 중고령층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유아 학부모의 사회활동 지원과 저출산 경향의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간은 올 6월부터 연말까지 시범 실시한 후, 반응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 실시는 서울 50개, 부산 40개, 대구·광주 각 30개, 충남 40개, 전북 30개, 전남 50개, 제주 16개 등 총 286개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대상 유치원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포함하여 유치원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선정하며, 교육청에서 자원봉사자를 선발, 교육시킨 후 해당 유치원에 배치하게 된다. 교육부 김정기 평생학습국장은 "지역사회의 중고령 여성들은 해방전후에 태어나 전쟁과 산업화, IMF를 겪으면서 누구보다 교육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육아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가청소년위, 제10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발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0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계도문』 발표와 함께 범죄자 533명의 신상과 범죄의 요지를 공개했으며,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시·군·구별로 공지했다. 이들 전체 성범죄자는 총 1,352명이며, 범죄유형은 강간 202명, 강제추행 315명, 성매수 783명, 성매수 알선 49명, 음란물 제작 3명 등으로 밝혀졌다. 피해청소년은 총 1,656명 발생하였으며, 이 중 강간 252명(15.3%), 강제추행 385명(23.3%), 성매수 922명(55.7%), 성매수 알선 90명(5.4%), 음란물 제작 7명(0.4%)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가 362명으로 전체 21.9%에 달했으며, 7세 미만 피해자도 4.3%로 조사되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난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범죄 심의대상자는 총 11,442명, 피해 아동청소년 수는 10,409명으로 가해자 1명 당 0.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직접 보호하는 교육관련 직업군의 범죄와 성범죄 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성매수와 성매수 알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이 성매매의 주된 창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을 전면 개편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구제 등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체계적인 등록관리와 재범방지교육 확대·강화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한층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전수집계 결과 발표

통계청이 25일 작년 11월에 조사한 우리나라 전국인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국인구는 유소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노년인구는 계속 증가하면서,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지난 95년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9.3%로 증가하였고, 0세에서 14세 이하 유소년층 인구의 전체 인구대비 비중은 95년 23%에서 지난해 19.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3만 1000명이 많은 2356만5000명으로, 60년 만에 여성

인구가 남성인구를 초과하는 ‘여초현상’이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이를 여성 100명당 남성수로 나타내면 99.5로 지난 2000년의 100.7보다 떨어진 수치이며, 연령별로는 10~14세 구간에서 11.2를 기록해 이 집단에서는 남초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여성의 인구가 더 많았다. 특히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남성 인구수가 여성 인구수의 절반에도 못미쳐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훨씬 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성별 종교인구를 살펴보면, 여성이 56.4%로 남성 49.7%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여성은 60~70대, 남성은 50~60대 연령층이 가장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와대,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정책대안 제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주관으로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혁신」을 주제로 하는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추진체제 정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확대 방안 등의 핵심 과제가 논의되었으며, 특히 여성·비정규직·영세 자영업자·장애인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거나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을 다루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4월에 당정이 논의한 바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확충을 위해 내년 3월에 시행할 계획인 「근로자 훈련계좌제」를 내년 하반기 중에는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등으로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여성의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Home to Work)을 개발하여 보급을 확대키로 하였고 특히 고학력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장애아통합교사, 문화가이드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전문 능력개발 과정에 대한 운영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근로자 및 취약계층의 집중적인 참여를 2배 이상으로 증대하는 등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을 2010년까지 현행 12.7%에서 25.0%로 확대하고, 참여인원도 현 480만명에서 90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평생 직업능력개발 구축 과제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해 온 것이다.

❖ 금융감독원, 대기업 남녀 연 평균급여 격차 2천2백만원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25일 금융감독원에 2005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1인 평균 급여액’은 약 5,174만원이었으며, 남직원의 경우에는 1인 평균급여가 5,563만원인 반면, 여직원은 3,310원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급여의 남녀차이가 2,2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이는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84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직원들의 1인 평균급여액”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높은 기업으로는 (구)조흥은행이 5,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포스코 5,128만원, 신한은행 5,100만원, 한국외환은행(국내) 4,987만원, 삼성중공업 4,89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직원과 남직원과의 급여차이는 쌍용자동차가 485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는 팬택앤큐리텔이 800만원, KT 837만원, GS리테일 900만원 순으로 성별 급여차가 비교적 적은 회사로 집계되었다.

잡코리아 정유민 상무이사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차장, 부장급 등 핵심관리직 비율에 성들의 비율이 5%도 채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대기업의 남녀 평균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관리자급에 남성직원들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남녀직원 1인 평균급여차가 적은 기업 순위

단위 : 천원

순위	기업명	남직원 1인 평균급여	여직원 1인 평균급여	남녀차이
1위	쌍용자동차	49069	44219	4850
2위	팬택앤큐리텔	49000	41000	8000
3위	KT	53980	45610	8370
4위	GS리테일	31000	22000	9000
5위	한국전력공사	54144	44145	9999
6위	CJ푸드시스템	29603	19367	10236
7위	LG텔레콤	41888	30532	11356
8위	삼성중공업	60400	48900	11500
9위	동국제강	47000	35000	12000
10위	교보생명보험	35271	23186	12085

◆ 출처 : 잡코리아

❖ 여성가족부, ‘가족구성원의 대화에 관한 온라인 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가 지난 30일 가정의 달을 맞아 (사)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와 함께 전국 만 13~5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구성원의 대화에 관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이 가족간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인 동시에 가족간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한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가족대화 건강수준’이 ‘인터넷 건강수준’에 비해 더 낮았으며, 특히 만 13~19세 청소년 자녀들의 인터넷 건강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과 함께 가족간 대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건강수준은 인터넷에 대한 심리적 의존 상태가 높아 건강도

가 떨어져 있었으며, 가족대화 건강수준은 가족간의 대화 기술이나 가족과의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1.9%는 인터넷 사용량 증가로 가족간 대화시간이 감소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7%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가족 내 규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한 가족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터넷 사용규칙 제정'에 대해서는 7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인터넷과 가족대화 건강수준이 낮은 10대와 20대에서 건강한 가족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천 의향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건강수준'이란 인터넷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장애나 중독현상 없이 얼마나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가족대화 건강수준'은 가족간에 대화가 단절되지 않고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각각 6개 평가항목에 의해 측정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으며, 상·중·하로 구분하여 평가했다.